

<p>5. 10. 20.(금) 12시 20분까지</p> <p>촉촉한 눈길</p> <p>김상옥</p> <p>어느 먼 창가에서 누가 손을 흔들기에</p> <p>초여름 나무 잎새들 저렇게도 간들거리나</p> <p>이런 때 촉촉한 눈길 내게 아직 남았던가</p>	<p>6. 10. 20.(금) 12시 20분까지</p> <p>대추 한 알</p> <p>장석주</p> <p>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.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</p> <p>저게 저 혼자 둥글어질 리는 없다.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별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</p>
<p>7. 10. 20.(금) 12시 20분까지</p> <p>숲</p> <p>정희성</p> <p>숲에 가보니 나무들은 제가꿈 서 있더군 제가꿈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어 광화문 지하도를 지나며 술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이 메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며 낯선 그대와 만날 때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</p>	<p>8. 10. 20.(금) 12시 20분까지</p> <p>너를 기다리는 동안</p> <p>황지우</p> <p>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,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,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.</p>